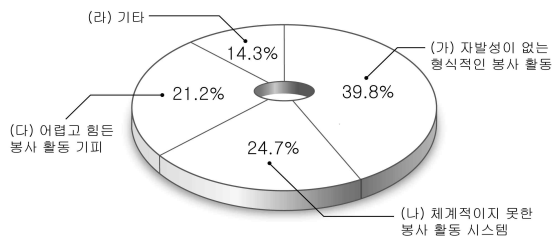


[1~2] 다음은 ‘학생들의 봉사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혹시 ‘마더테레사 효과’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이 말은 남을 돕는 활동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거나 남의 선행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대가나 보수, 명예 등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이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인데, 이런 이타적인 활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효과를 경험해 보셨나요? (많은 학생들의 웃음) 예,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느낀 문제점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자료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문제점>



이 자료를 보면, (가)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 원인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봉사 활동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자발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 항목인데, 그 원인은 학교나 봉사 활동 관련 기관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일회성에 머무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 항목은 (가) 항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시간 채우기에 치중하다 보니 편한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활동이 아닌 것이죠. (가), (나), (다)의 원인을 살펴보니 봉사 활동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 (다)의 경우, 자신의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부터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성과 이타성이 부족한 것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하는 봉사 활동으로 ‘마더테레사 효과’를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연계된 기관의 봉사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또 활동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봉사 활동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면, 이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 발표 목적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①

나. 청중 분석

- 대상 : 2학년 ○반 학생들
- 특성 : 많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문제점을 느끼고 있음. ②

다. 발표 전략

- 청중에게 정서적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일화를 소개함. ③
- 화제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 형식을 활용함. ④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함. ⑤

2. 위 발표를 듣고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봉사 활동 참여자에게 인식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어.
- ②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쉬웠어.
- ③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었다면 좋았겠어.
- ④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를 밝혀 주었다면 문제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어.
- ⑤ 개선 방안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한 활동의 이수를 의무화하면 봉사 활동의 자발성을 해칠 수도 있겠어.

[3~4] 다음은 학급 임원들의 토의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반 장** :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때 숙소 방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급 임원들끼리 먼저 토의해 보라고 하셨어. 우리 반은 모두 스물여덟 명이고, 방은 모두 네 개야. 어떻게 방 배정을 하면 좋을까?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면 좋겠어.
- 봉사부장** : 나는 번호 순으로 방을 배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잡지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번호 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익숙해. 그러니까 번호 순으로 방을 배정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 반 장** : 좋은 아이디어야. 학습부장 생각은 어때?
- 학습부장** : 그동안 부서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부서원들끼리 아직도 서먹서먹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별로 방을 배정했으면 좋겠어.
- 체육부장**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서가 없는 반장과 부반장은 어떻게 하라고?
- 반 장** : 잠깐만.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자제했으면 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평가보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 체육부장** : 그래, 알겠어. 나는 이전에 우리 반 청소 구역을 정할 때 임원들끼리만 짜다 보니, 반 아이들 반응이 안 좋아서 선생님께서 다시 짜 주셨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생님께서 짜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 반 장** : 부반장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어떤 아이디어라도 괜찮으니까 생각나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
- 부 반 장** : 반장 말대로 나도 의견을 하나 내야 할 텐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난 그냥 전체 의견에 따를게.
- 반 장** :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돼. 총무부장은 의견 없니?
- 총무부장** : 아주 쉽게 방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 제비뽑기는 어때? 누구랑 한 방을 쓰게 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운이야.

3. 위의 토의에 대한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할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요	
사회자	반장	토의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		...①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는가?		✓	...②
참여자	봉사부장	토의 주제에 맞게 말하였는가?	✓		...③
	학습부장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였는가?	✓		
	체육부장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말하였는가?		✓	...④
	부반장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토의에 참여하였는가?		✓	...⑤
	총무부장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적인가?	✓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따라 듣기를 수행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말은?

<보 기>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발화의 내용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알고, 이에 따라 상대의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야 한다. 청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 ① 봉사부장의 말 ② 학습부장의 말
③ 체육부장의 말 ④ 부반장의 말
⑤ 총무부장의 말

5. 다음 대화를 참조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빠 : (딸의 표정을 보며) 우리 공주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은희 : 민지 때문에.....
아빠 : 민지라면 너와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은희 : 네, 맞아요.
아빠 : 근데 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은희 : 도서관 부장인 민지가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아빠 : 발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보구나.
은희 : 아뇨. 그 학생들을 고려하여 발표 준비는 많이 했어요.
아빠 : 그런데 왜 발표를 잘 못했어?
은희 :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평소 아는 친구들 앞에서는 얘기를 잘 하는데.....
아빠 : 음, 민지가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고 했지?
은희 : 네, 맞아요.
아빠 : 그렇다면 네가 민지에게 ㉠ 라고 위로해 주면 되겠구나.

- ① 청중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 거야.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면 청중의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③ 낮은 청중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정 관리만 잘한다면 괜찮아질 거야.
④ 청중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자세를 지닌다면 해결되는 문제야.
⑤ 낮은 말하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6~7] 다음은 작문 시간에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주제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을 높이자.
- 예상 독자 : ○○고등학교 학생
- 실태 파악 :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문제 인식 : 게시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임.
- 조사 내용 :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게시판의 이용 방법이나 절차
- 조사 결과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음. 본인의 실명 확인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의견을 올릴 수 있음.
- 결과 분석 : 학생들의 인식과 이용의 괴리 현상은 게시판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임.
- 내용 조직 : '문제 제기 및 문제점 분석 - 개선 방안 마련'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함.
- 서술 방향 : ㉠

6. '글쓰기 계획'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의 게시판 이용률이 낮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이 높은 다른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게시판 이용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 ③ 학생들이 게시판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게시판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게시판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학교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 ⑤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게시판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홍보한다.

7.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자 할 때, 글의 시작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글쓰기 계획> 중의 '실태'를 반영할 것
- 청유형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제기를 할 것

- 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게시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부터 분석해 보자.
-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자.
- ③ 학생들은 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꺼릴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과 제도 차원에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④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게시판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탓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보기>를 읽고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이름난 목수가 큰 집을 짓기 위해 조수와 함께 재료(材木)를 구하러 다녔는데, 어느 마을 앞을 지나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침 동네 꼬마들이 그 나무 그늘을 놀이터 삼아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목수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수는 목수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저 큰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그러자 목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런 쓸모없는 나무야. 겉모양을 보게나. 꾸불꾸불하게 생겼잖아. 저런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아무 소용도 없으니가 저렇게 베이지 않고 있는 게지.”

<조 건>

- 대상을 바라보는 목수의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것
- <보기>의 정보를 활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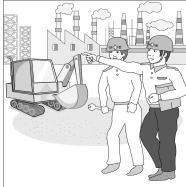
- ① 쓸모없는 나무가 오랫동안 베이지 않았다는 점을 활용하면, 세상에는 꼭 쓸모 있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환기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곧은 나무가 집을 짓는 좋은 재료로 쓰인다는 사실을 활용하면,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곧은 나무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나무의 쓰임에 대해 목수와 조수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조수가 스승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목수가 되었다는 점을 활용하면, 불성실한 학생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일러주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굽은 나무가 큰 그늘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쉼터가 되었다는 점을 활용하면, 성적이 낮은 제자에게 자신만의 재능을 개발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해 보자.



[그림1]



[그림2]



[그림3]

과제 수행 전략

오늘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림은 모두 세 개였는데, 세 그림의 의미를 상호 연결하여 표현 하되, 특히 [그림 3]의 의미를 부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선 글의 제목부터 정하고 관련 내용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로 하였다. 글감을 찾고 난 뒤에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골라 글을 쓰기로 했다. 실패와 문제점을 먼저 소개하고, 끝에는 독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생의 글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통계청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노년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하다. 이분들에게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스무 살 시절이 있었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장년 시절도 있었다. ㉢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힘이였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외롭게 지내고 있다. ㉣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내일의 당신이기 때문이다. ㉤ 지금부터라도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한다.

9. '과제 수행 전략'을 참조하여 학생의 글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체를 통해 찾은 자료를 논거로 활용하였다.
- ② 글의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을 설정하였다.
- ③ 글의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 ④ 그림에 담긴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 ⑤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홀로 살아가는'을 삭제한다.
- ② ㉡은 앞 문장과 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바꾼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모두가' 뒤에 '관심을'을 추가한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하나의 단어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다의어'라고 한다.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뉜다. 중심적 의미끼리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가) 넓다 ↔ (도로가) 좁다	중심 ↔ 중심
(학교가) 넓다 ↔ (시야가) 좁다	중심 ↔ 주변
(마음이) 넓다 ↔ (시야가) 좁다	주변 ↔ 주변

* ↔: 반의 관계가 성립함.

* ↔: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① 결심이 서다 ————— 요직에 앉다
- ② 차렷 자세로 서다 ————— 잠자리가 장대에 앉다
- ③ 칼날이 서다 ————— 책상에 먼지가 앉다
- ④ 전봇대가 서다 ————— 의자에 앉다
- ⑤ 일렬로 서다 ————— 방식을 깔고 앉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발음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발음된다.
- 겹받침에 관한 발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겹받침 'ㄲ', 'ㄴ', 'ㄷ', 'ㄹ', 'ㅁ', 'ㅂ'의 경우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ㄴ'만은 예외적으로 [ㄴㅅ]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ㄹ', 'ㄷ', 'ㅁ'의 경우 [ㄱ, ㄴ, ㅁ]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ㄴ]로 발음한다.

- ① '넙꼬'는 [넵꼬]로 발음해야겠다.
- ② '닭꼬'는 [담:꼬]로 발음해야겠다.
- ③ '뭉꼬'는 [목꼬]로 발음해야겠다.
- ④ '옹꼬'는 [을:꼬]로 발음해야겠다.
- ⑤ '훈꼬'는 [훈꼬]로 발음해야겠다.

13.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새가 날아간다.
- ㄴ. 어디 갔니, 영희는?
- ㄷ.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 ㄹ.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 ㅁ.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 ① 'ㄱ'과 'ㄷ'을 보면,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 ② 'ㄱ'과 'ㄹ'을 보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어.
- ③ 'ㄱ'과 'ㅁ'을 보면, 상황에 따라 주어라 생략될 수도 있어.
- ④ 'ㄴ'과 'ㄷ'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어.
- ⑤ 'ㄷ'과 'ㄹ'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는 조사 ‘만큼’이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 대상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런데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① 그는 그녀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 ② 그녀는 나보다 얹은키가 훨씬 크다.
- ③ 그녀는 비싼 옷보다 책에 관심이 많다.
- ④ 그는 나만큼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 ⑤ 그녀는 나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한다.

1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술방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술’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꽃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꽃-’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 ①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 ② ‘날짐승’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 ③ ‘군소리’와 ‘군밤’은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이군.
- ④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 ⑤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군.

[16~17]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제: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소비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서 발표하기

수진: (책의 목차를 살핀 후) ‘어플루엔자’, ‘디드로 효과’, ‘베블런 효과’……. 모두 생소한 용어들이네.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뜻부터 알아보자. (한참 인터넷을 검색하고 살핀 후) ‘베블런 효과’가 재밌겠다. (책을 읽다가)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고? 무슨 뜻이지? ‘싼 게 비지떡’

이라는 말인가? 이 부분을 읽어보자. (한참 책을 읽은 후) 내 예상과 다른데……. ‘베블런 효과’는 부자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비판하면서 생긴 말이군.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려는 허영심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군. 이것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될까? (다시 책을 읽다가) 부자들의 소비 행태가 일반인에게도 확산되었구나. 그렇다면 ‘베블런 효과’는 현대인들의 ‘명품 열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어. 요즘 친구들이 옷이나 신발을 고를 때 무조건 비싼 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부터 발표 계획을 세워볼까?

영수: 제목은 쉬운 것 같더니, 목차는 낯선 용어들로 가득하네. 전부 다 읽을 수도 없고 어찌지? 우선 대충 훑어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자. (소제목들 중심으로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이렇게 대충 훑어봐서는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정하지 못하겠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쇼핑’과 관련된 부분이 낯설다. (잠시 읽더니) ‘어플루엔자’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부자병으로 전염성이 강하다.’고? 이것도 쉽지는 않네. 안 되겠다. 먼저 이 부분에 나오는 낯선 용어부터 찾아 정리하자. 용어부터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사전을 찾으며 용어를 이해한 후) 이제 ‘어플루엔자’가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네. ㉠ 그럼 이 부분을 읽고 중심 내용만 요약하면 과제는 끝나는군.

16. ‘수진’과 ‘영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진’은 글을 읽기 전에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부터 하였다.
- ② ‘수진’은 글을 읽어가는 도중에 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활동을 하였다.
- ③ ‘영수’는 글을 읽기 전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경험부터 활성화 하였다.
- ④ ‘영수’는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방법을 순간순간 바꾸어 나갔다.
- ⑤ ‘수진’과 ‘영수’는 모두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읽었다.

17. ㉠에 대해 ‘수진’이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수행할 과제를 다시 확인하여 글을 읽는 목적부터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 ② 매체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다르니까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매체의 특성부터 살필 필요가 있어.
- ③ 중심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르는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
- ④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
- ⑤ 읽기는 능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필 의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개에게 발목을 물렸다고 하자. 아이는 이 일을 겪은 뒤 개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멀리 있는 강아지만 봐도 몸이 경직되고 호흡 곤란을 느꼈으며 심할 경우 응급실을 찾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이 공포증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포증’이란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그 대상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증세를 말한다. 특정한 동물, 높은 곳, 비행기나 엘리베이터 등이 공포증을 유발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대상을 접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공포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 심리학자 와이너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포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극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상황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상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내부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면 ‘외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고정적’으로 인식한 것이고,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변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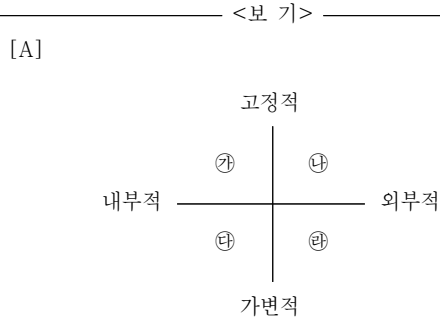
(라) 와이너에 의하면, 큰 개에게 물렸지만 공포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개에게 물린 상황에 대해 ‘내 대처 방식이 잘못 되었어.’라며 내부적이고 가변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나의 대처 방식에 따라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개와 마주치는 상황을 굳이 피하지 않는다. 그 후 개에게 물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나도 어떤 경우라도 개를 감당할 수 있어.’라며 내부적이고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마) 반면에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개에 물린 상황에 대해 ‘나는 약해서 개를 감당하지 못해.’라며 내부적이고 고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개는 위험한 동물이야.’라며 외부적이고 고정적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힘이 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개를 맹수로 여기는 것이므로 이들은 자신이 개에게 물린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포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상황을 해석하고 개를 피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면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18. (가)~(마)의 핵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공포증이 생긴 구체적 상황
- ② (나) : 공포증을 유발하는 대상과 개념
- ③ (다) : ‘와이너’가 제시한 상황 해석의 기준
- ④ (라) : 공포증을 겪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 해석의 방식
- ⑤ (마) :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

19. <보기>의 [A]는 ‘와이너’의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B]의 각 사례에 대한 해석 방식을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B]

<사례 1> 축구 결승전에서 ○○팀은 심판이 홈팀에 유리하도록 편파 판정을 하는 바람에 지고 말았다. 이에 ○○팀 소속의 선수는 “다시 시합을 해도 저 사람이 심판을 보면 또 질 거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례 2> 가수 △△는 지상파 방송의 연말 공연에서 신곡의 가사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였다. 하지만 △△는 “이번에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례 1>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라)

<사례 2>

- ① (나)
- ② (다)
- ③ (가)
- ④ (라)
- ⑤ (라)

20. ‘공포증’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포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②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공포증을 통제할 수 있다.
- ③ 감정을 숨김없이 발산시킬 때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
- ④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공포증에서 벗어나려면 유사한 상황에 일관되게 반응해야 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는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실내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 받을 수 있고, 습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특히 겨울철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와 안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오랫동안 건물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졌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이 빠져 나가지 않게 전체 단열 계획을 잘 짰 다음,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 단열재로 시공해야 한다.

건물의 실내에는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건물은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돌려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 받지만,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 공기가 공급되면 실내 에너지가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나가는 공기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들어오는 공기가 회수해 올 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열 교환 환기 장치이다. 이 장치는 주로 실내 바닥이나 벽면에 설치하는데, 실내의 각 방과 실외로 연결되는 배관을 따로 시공하여 실내의 공기를 교환한다. 구성 요소는 팬, 열 교환 소자, 공기 정화 필터, 외부 후드 등이다.

그 중 핵심 요소인 ㉠ 열 교환 소자는 열과 수분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뛰어나도록 만든다. 실내외의 공기가 나가고 들어올 때 이 열 교환 소자를 통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내 공기의 주 오염원인 CO₂는 통과시켜 배출한다. 하지만 열 교환 소자는 나가는 공기가 지니고 있던 80% 내외의 열과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투과시켜 들어오는 공기와 함께 실내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러한 장치 덕분에 창을 열지 않아도 환기가 가능하다. 실외의 황사나 꽃가루 등은 공기 정화 필터로 걸러지므로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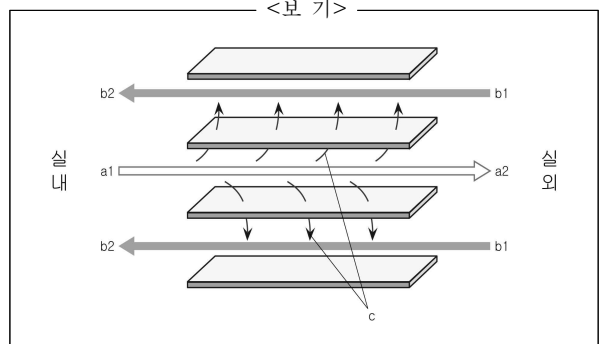
햇빛을 통한 에너지 공급도 건물에서는 중요하다. 햇빛은 창호를 통해 들어오는데, 여기서 ㉡ 에너지의 손실 방지와 햇빛의 공급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햇빛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얇은 유리나 창호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두께가 얇을수록 에너지의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중 로이유리(Low-E Glass)를 사용한다. 이것에는 두께가 얇고 투명한 유리 세 장에 에너지 흐름을 줄이는 금속 막이 썩어져 있고, 이들 유리 사이에는 무거운 기체가 채워져 있다. 투명한 유리는 햇빛을 많이 통과시키고, 금속 막과 무거운 기체는 실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습도 조절도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건물에서 습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것은, 외부 공기가 스며 들어 벽체 표면의 습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또, 곰팡이는 집 안 전체의 습도가 아주 높거나, 전체 습도는 낮고 벽체 표면이나 벽체 속의 습도가 높아도 생긴다. 그러나 패시브 하우스는 밀폐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겨울철 벽체의 온도와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슬 맺힘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21.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후드를 설치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한다.
- ② 황사나 꽃가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 ③ 특수 단열재를 사용해 내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 ④ 두께가 얇은 3중 로이 유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막는다.
- ⑤ 단열과 밀폐성이 뛰어나서 이슬 맺힘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22. 윗글을 참고하여, ㉠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3점]



- ① a1 공기에서 열과 수분이 줄어든 공기가 a2이다.
- ② a2 공기가 최대화된다면 b2 공기가 최소화된다.
- ③ b1 공기에서 CO₂가 없어진 공기가 b2이다.
- ④ c는 b2 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c의 양은 열 교환 소자의 열전도율에 반비례한다.

2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햇빛이 다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 ② 햇빛이 들어와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 ③ 햇빛이 많이 공급될수록 에너지의 손실은 커지기 때문에
- ④ 햇빛을 열에너지로 바꾸려면 특수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 ⑤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객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카노는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욕구와 만족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카노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각각 기본적 욕구, 정상적 욕구, 감동적 욕구라고 지칭했다.

기본적 욕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서,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들이다. 만약 이런 특성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여되어 있다면, 고객은 예외 없이 크게 불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 욕구는 고객이 직접 요구하는 욕구로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고객은 불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고객은 만족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감동적 욕구는 고객이 지니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서, 고객이 기대하지는 않는 욕구이다. 감동적 욕구가 충족되면 고객은 큰 감동을 느끼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카노는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법**을 제안하였다.

세 가지 욕구와 관련하여 고객이 식당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의자와 식탁이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의자와 식탁이 깨끗하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객은 크게 불만족스러워 한다. 한편 식탁의 크기가 적당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은 식탁이 좁으면 불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로 식탁의 크기가 적당해지면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식탁 위에 장미가 놓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실제로 식탁 위에 장미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만족 이상의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 고객이 불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다. ① 고객의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다. 즉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킨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기본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바뀐다. 또한 고객의 욕구는 일정한 단계를 지닌다.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고객의 정상적 욕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객의 정상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고객의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4.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상의 변화 과정과 그것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개념 사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적용한 사례인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회사는 10년 동안 사용하던 복사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기존 복사기는 단순한 복사 기능만 갖추고 있었는데, 종이도 잘 걸리고 복사 속도도 매우 느렸다. 새 복사기는 종이 걸림도 없고 속도도 빠르며 팩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복사기 제조사에서 ○○ 회사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 내용]

[질문1]: 복사기가 종이 걸림 없이 잘 작동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질문2]: 복사기의 빠른 복사 속도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질문3]: 복사기의 팩스 기능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질문에 대한 반응]

(단위: 명)

	감동적이다	만족스럽다	당연하다
[질문1]	0	1	9
[질문2]	2	6	2
[질문3]	4	4	2

- ① 어느 누구도 빠른 복사 속도를,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 ② 종이 걸림이 없는 특성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적었다.
- ③ 팩스 기능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한 사람보다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한 사람이 더 많았다.
- ④ 빠른 복사 속도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더 적었다.
- ⑤ 종이 걸림이 없는 특성을, 정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한 사람과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한 사람의 수는 같았다.

26.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는?

- ① 예전에는 사람들이 TV의 절전 기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기능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② 예전에는 사람들이 세탁기에 살균 기능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기능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③ 예전에는 사람들이 청소할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진공청소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④ 예전에는 사람들이 에어컨에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기능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자동 변속 기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필수적인 기능으로 생각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인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한 후, 그는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동적인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우주가 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그의 이론에 삽입했다.

그러나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 아인슈타인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요소는 의미가 없어졌다. 허블은 자신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블의 연구 이후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하는 우주론들이 등장했다.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이론은 **가모프와 앨퍼**가 제안한 대폭발 이론이다. 그들은 150억 년 전과 200억 년 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한 점에 모여 있던 질량과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폭발 이론이 정말로 옳다면 우주배경복사*가 관측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주배경복사는 1960년대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대폭발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폭발 이론이 입증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속도로 팽창했고 앞으로 어떻게 팽창해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주는 힘은 중력이다. 중력이란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을 방해한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될까?

㉠ 큰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고 언젠가는 멈추었다가 다시 수축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우주의 질량은 우주의 팽창을 저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 물질이 많으면 우주 전체의 질량이 늘어나 팽창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발견으로 우주의 팽창이 느려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슈미트와 크리슈너는 초신성을 관측해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 암흑 에너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 우주배경복사: 우주 탄생 후 최초로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진 빛.

27. 밑줄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 연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 ②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와 그 의미
- ③ 우주 팽창에 관한 이론의 전개 양상
- ④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
- ⑤ 우주 팽창론과 수학적 이론의 학문적 교류

28.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의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면서 이론을 정립해 가지만 개인적 신념이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론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학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정립된 이론은 후대 과학자들의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입증되기도 하고 수정되거나 버려지기도 한다.

- ① ‘아인슈타인’은 연구 결과보다 개인적 신념에 더 의지하여 이론을 정립했다.
- ② ‘허블’의 실증적인 방법에 의하여 우주 팽창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무의미해졌다.
- ③ ‘가모프’와 ‘앨퍼’는 ‘허블’이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이론으로 정립했다.
- ④ ‘펜지어스’와 ‘윌슨’은 ‘가모프’와 ‘앨퍼’의 이론을 입증하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 ⑤ ‘슈미트’와 ‘크리슈너’는 초신성 관측을 통해 ‘가모프’와 ‘앨퍼’의 이론을 수정했다.

29. ㉠과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달리는 차가 갑자기 멈추면 서 있는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 ② 부메랑을 던지면 멀어졌던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 ③ 고여 있는 물 위에서 종이배를 밀면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
- ④ 공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 ⑤ 바람이 가득 든 풍선의 입구를 막았다가 놓으면 풍선은 빠져 나가는 공기의 방향과 반대로 날아간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은 기존의 물질을 파괴한다.
- ② ㉡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감소시키고, ㉢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증가시키고, ㉢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감소시킨다.
- ④ ㉡은 별과 별 사이의 중력을 감소시키고, ㉢은 별과 별 사이의 중력을 증가시킨다.
- ⑤ ㉡은 우주 전체를 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은 우주 전체를 동적인 상태로 변화시킨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독자의 상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시를 보면 외부 세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제 말기라는 식민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1939년에 창작된 「독을 차고」라는 작품 속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화자의 모습은 곧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에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⑤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33.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2연으로 전개되면서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1연에서 벗이 화자에게 한 충고가 구체화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시행에 변화를 주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진행되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우는 용기를 내 가지고 두세 곳 되는 병원을 휘뚜루 찾아갔다. 그러나 결과는 탐탁지 않았다. 탐탁지 않았다고보다 가는 곳마다 완전히 실패했다.

간호원인가 조수인가 싶은 사람들은 우선 바우의 비에 젖은 물골부터 보고 심상치 않은 눈치들을 하였다. 한 군데서는 솥재 바깥에 달구지까지 뺨뚫 내다보고도 그러했다.

“제발 좀 보아 주십시오! 삼십 리 길이나 끌고 왔는데…….”

바우는 동정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머리를 숙여보았다. 행여나 싫어 말씨까지 소위 읍내 사람 식으로 하느라 조심했다.

“글쎄요, 선생님! 안에 계시는지…….”

간호원인가 조수인가 싶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던져놓곤 일단 안으로 들어갔다. 요컨대 혼련이 잘 돼 있다는 증거일까? 돌아와서 하는 수작은 마찬가지였다.

“안에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하니 아마 어디 가신 모양입니다.”

바우는 더 애걸해 볼 정나미가 떨어졌다. 가끔 들어오던 바와 같다고 짐작되었다.

XXX 놈들!

분했다. 만약 어떠한 일이 있다면 이런 놈들부터 어떻게 하리란 되지도 않을 양심을 품으며, 바우는 병원 앞을 떠났다. 달구지 채를 휘어잡은 팔이 자꾸만 떨려 왔다.

마지막으로 바우가 찾아간 곳은, 옛날 나무전 거리에 있는 무슨 가축병원이란 데였다. 아랫마을 누구도 등창이 났을 때 거기서 약을 얻어다 쓰고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없는 놈들은 그저 그렇지!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가축병원이란 데는 소위 일반 병원과는 달라서, 까다로운 문간도 없고, 그저 허름한 갈대밭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아마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을 끌고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 싶었다.

바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얼른 발을 들치고 들어갔다. 다행히 수의사란 사람만은 있었다. 나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제법 코밑수염까지 기르고 있는 품이 꽤 믿음직하게 보였다.

“저 —— 특별한 부탁이…….”

해 놓곤, 바우가 얼른 말을 못 잇고 어름대니까, 그는 갑갑한 듯이 발 뜸으로 바깥 달구지 쪽을 흘깃 내다보며,

“돼집니까?”

[A] 하였다. 대답 대신, 바우의 눈에서는 느닷없이 눈물이 펄 쏟아져 내렸다.

“왜 그러시오?”

주인인 수의사가 더 당황했다.

“머라캐도 좋심더, 빨리 좀 봐 주이쇼!”

바우는 매달리는 소리를 했다.

“아니 뭔데 그러시오?”

수의사는 신발을 끌고 나오더니 발을 들치고 내다보았다.
가빠* 밑에서 ‘아이고!’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사람 아니오?”

수의사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바우 쪽을 뒤돌아보았다.

“사람은 병원엘 가야합니다. 여기서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밖에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 보시오!”

“다 가 보았심더, 그러나 아무데서도…….”

바우의 말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하소연
같이 들렸다.

수의사의 얼굴에는 어떤 감동의 빛이 일컫는 것 같았다. 그는
잠깐 — 아니, 이삼 초췌일까,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떡해 보이며,

“하여튼 안으로 옮기시오! 비도 오고 하니…….”

(중략)

분통이의 병은 그 길로 좋게 회복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를
내지 사흘에 한 번씩 수의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하루는 가족병원이란 간판이 떨어지고 없었다. 갈대밭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웬일일까?…….’

분통이는 서먹한 얼굴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의사 선생은
없고 부인만이 나왔다.

“어서 오소. 좀 낫는지요?”

역시 친절하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선생님은?”

“어디 좀 갔읍디. 곧 올깁니다.”

부인은 경상도 사투리였다. 경상도 사투리의 부인은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수의사가 분통이의 수술을 해 준 며칠 뒤 뜻밖에 경찰에서
젊은 경관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던 것이었다.

“저—— 댁에서 며칠 전 사람 수술을 했대지요?”

하는 품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수의사는 경찰에 불려갔다. 왜 수의사인 주제에 사람 수술을
했냐는, 말하자면 국민 의료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다행히 취조를 맡은 사람이 학사순경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긴급을 요하는 상태였다 해서 <위법성의 조각(阻却)>이란 조목에
해당시켜 주어서 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건
그거지만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그에 간판을 떼어 갔다. 말하자면
밥줄을 뚝 끊었다.

“그래요?”

분통이는 놀라움과 미안함을 한꺼번에 느꼈다. 의사들이 안
고쳐 주는 걸 수의사가 고쳐 주는 게 무엇이 나쁜고! 법도 법도
이상한 법이 있다, 싶었다.

“공연히 지 때문에……. 그런데 우째 알았을까요?”

분통이는 미안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기사 다 아는 길이 안 있겠능지요. 어떤 사람들이라꼬! 학사
순경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어떤 의사가 그랬다 카네
요…….”

— 김정환, 「축생도(畜生道)」—

*가빠: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로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시선이 인물 내면에까지 미쳐 심리를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를 통해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박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35. 다음은 [A]를 ‘수의사’의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0월 0일

아침부터 비가 뿌리더니 정오 무렵에는 빗줄
기가 더 굵어졌다. 이런 날씨에 찾아올 손님이
있을까 했는데, 오후 늦게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한 사내가 찾아왔다. ㉠ 사내는 부탁이 있다고
말해놓고는 무언가 곤란한지 다음 말을 쉽게 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답답했다. 바깥에는
사내가 끌고 온 달구지가 있었다. ㉡ 달구지에
싣고 온 게 뭘까 싶어 별 생각 없이 돼지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
리기 시작했다. ㉢ 당황한 나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하여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 그는 제
대로 대답하지 않고 빨리 치료해 달라며 나에게
화부터 냈다.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러는가
싶어 달구지 쪽으로 다가갔다. ㉤ 놀랄게도 댕개
밑에서 고통에 찬 사람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
다. 나는 사내를 돌아보았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60년대 말은 산업화의 시대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 시작했으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병폐도 생겨났다. 외적 성장에만 매달려 권력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한 면도 있었다. 물론 시대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따뜻한 인간미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이기주의에 빠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간 사람도 많았다. 김정한의 「축생도」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잘 그려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① ‘바우’와 ‘분통이’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처지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
- ② ‘간호원’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 ③ ‘수의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감싸주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어.
- ④ ‘젊은 경관’은 제도의 맹점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 ⑤ ‘어떤 의사’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의 삶까지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곱비덥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테를 가리지 말고 워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밧게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
어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정월 냇물은 아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정월령>

오월 오일에 아으 단옷날 아침 약(藥)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유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빚 같구나.

돌아보실 입을 잠시나마 파르겠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칠월 보름에 아으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시월에 아으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어라. / 아으 동동다리

<시월령>

십일월 봉당자리*에 아으 홀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입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 봉당자리: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흠바닥.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38.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 작품 속에 화자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행동하는 모습(Ⅰ)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 보이는 모습(Ⅱ)이 그것이다.



- ① ㄱ: ‘님이~바라보니’는 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② ㄴ: ‘거머희뜩~님이로구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작각이다.
- ③ ㄷ: ‘버선을~건너가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 행동이다.
- ④ ㄹ: ‘정(情)옛말~속였구나’는 사랑하는 입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 ⑤ ㅁ: ‘모쳐라~뻔하였어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는 반응이다.

3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령>의 '냇물'과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② <오월령>의 '바치읍니다'와 <칠월령>의 '비읍니다'에는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
- ③ <유월령>의 '따르겠습니다'와 <칠월령>의 '함께 지내고자'에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④ <유월령>의 '빗'과 <시월령>의 '보리수나무'는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다.
- ⑤ <시월령>의 '없어라'와 <십일월령>의 '각각 살아가는구나'에는 고독하게 지내는 삶이 드러나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선비 백상군(白尙君)과 부인 정 씨는 명산대찰에 빌어 외아들 선군(仙君)을 얻는다. 장성한 선군은 꿈에 나타나 천생의 연분임을 알린 숙영과 사사로이 혼인하여 팔 년 동안 행복한 세월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 백상군은 아들에게 과거 응시를 권유한다.

“나라에서 이번에 과거를 실시한다 하니 너도 꼭 응시하여라. 다행히 급제하게 된다면 조상을 빛내고 부모도 영화롭지 않겠느냐?”

부친의 타이름을 들은 선군(仙君)은 정좌(正坐)한 채로 여쭙는다.

“아버님, 불효한 자식 굶어 살피소서. 과거며 공명은 모두가 한낱 속물이 탐하는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 집에는 수천 석을 헤아리는 전답(田畓)이 있삽고, 비복(婢僕)이 천여 명이나 되며,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사온데 무슨 복이 또 부족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 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에 제가 과거에 응시하고자 집을 나선다면

남자와는 이별하게 될 것이온즉 사정이 절박하옵니다.”

하고는 동별당으로 돌아와 낭자에게 부친과 주고받은 말을 전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낭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그윽한 눈길로 선군을 타일렀다.

“과거를 보시지 않겠다는 낭군의 말씀이 그릇된 줄로 아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면 출세하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입니다. 그리하온데 낭군께서는 어찌하여 저 같은 규중처자에 얽매인 나머지 장부의 당당한 일을 포기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불효가 되고 그 욕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니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하오니 낭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과거 준비를 하시고 상경하여 남의 웃음을 면하시도록 유념하소서.”

이처럼 말하면서 과거에 응시할 차림과 여정의 행장을 갖추어 주었다. 행장이 차려지자 낭자는 다시 강경한 다짐을 선군에게 하면서,

“낭군께서 이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낙방거사(落榜居士)*가 되어 돌아오신다면 저는 결코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오니, 다른 잡념 일체를 버리시고 오직 시험에 대한 일념으로 상경(上京)하셔서 꼭 급제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들던 말보다도 낭자에게 들으니 선군의 급제는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생각되었다.

【중략 줄거리】 과거를 보러 간 선군은 이를 밤이나 몰래 숙영을 만나고 갔는데, 숙영의 방에 있던 선군을 외간 남자로 오해한 백상군은 며느리의 정절을 의심하여 시비(侍婢) 매월을 시켜 숙영을 염탐하게 한다. 매월은 숙영이 정실부인으로 오기 전 선군에게 사랑받았던 몸종이었는데, 숙영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차에 간계(奸計)를 꾸며 누명을 씌운다.

숙영 낭자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흐느껴 울자, 백공(白公)은 크게 노하여 큰 소리로 꾸짖었다.

“무덤하구나, 닥쳐라! 내 두 귀로 직접 듣고, 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네가 끝내 속이려 들다니, 너는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려고 하느냐? 양반의 집안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음은 참으로 망측한 변괴다. 너와 상통한 놈의 이름을 대라!”

시아버지의 호령은 늦가을 서리만큼이나 차갑고 매서웠다. 그러나 죄가 없는 숙영 낭자는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구김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무리 시부모님의 간택으로 육례(六禮)*를 치르지 못한 며느리라고는 하나 어이하여 그다지도 끔찍한 말씀을 하시니 이까? 이처럼 억울한 일을 맞이하여 제가 누명을 벗기 위해 변명하는 것도 삼가 부끄러운 노릇이오나, 아버님께서도 상세히 조사해 보시옵소서. 제 몸이 지금은 비록 인간으로 되어 있다 하오나 빙옥(氷玉)같은 굳은 정절로 살아오다가 어이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억만 번을 죽는다 하여도 사실에 없는 일을 어찌 여쭙오리이까?”

낭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지난번에 낭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 보낸 일은 있었사옵니다.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썰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펴 아시오니 아버님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情狀)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 낭자는 참을 수 없는 때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굶어 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나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낙방거사(落榜居士): 과거 시험에 떨어진 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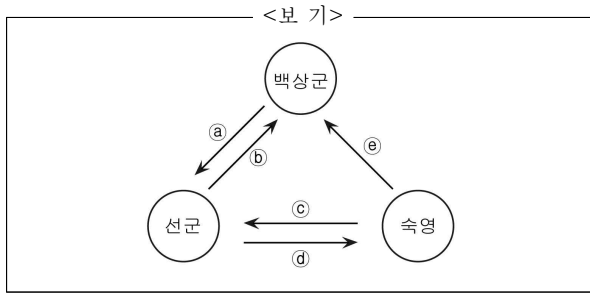
* 육례(六禮):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40. [A] 부분의 말하기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
- ②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 ③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 ④ 상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처지를 내세우고 있다.
- 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41. <보기>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①~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상군은 가부장적 질서와 가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인다.
- ② ㉡: 선군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보다 부인과의 애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 숙영은 자신에 대한 선군의 믿음을 의심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
- ④ ㉣: 선군은 숙영의 말을 듣고 과거 응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 ⑤ ㉤: 숙영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42. [B]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의환향(錦衣還鄕)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군.
- ②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군.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을 하게 될까 염려하는군.
- ④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이 절실하군.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위로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지민은 영화감독을 꿈꾸며 영화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영화반 수련회와 영화 제작을 추진하지만, 학교와 학생부장인 광도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실전을 벌인다. 같은 영화반원인 정연은 집안 사정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영화반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 지민은 이러한 상황에 상처를 받는다.

S# 33. 영화반

어두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서는 지민, 자리에 털썩 앉는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시늬가 눈에 띈다. 천천히 시늬를 집어 들고 보는 지민 위로.

광도 (E.*) 그러게 평상시에 좀 잘하지. 그랬으면 왜 허락을 안 해 주겠어?

지민, 울컥 치미는 감정으로 휴지통에 시늬를 던져 버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지민, 밖으로 나가려는데 안으로 정연과 마주친다. 순간, 둘 다 어색하게 굳는데.

정연 (담담하게) 여기..... 있었구나. 성제가 많이 걱정하던데.

지민 어.

정연 지민아!

지민 (보면)

정연 (담담하게) 영화 제작은 아직 결정 난 거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지민 (O.L.*) 끝났어.

정연 (놀라서 보면).....?

지민 다 끝났다고. (자조적으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영화 제작이니 뭐니 설치구 다닌 내가 잘못이지 뭐.

정연 지민아, 니 기분 이해해. 하지만.

지민 (O.L.) 넌 이해 못 해.

정연 (굳어서 보면)!

지민 넌 잡초가 아니니까. (나간다.)

한 대 맞은 듯 멍하게 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정연. 문득, 휴지통에 버려진 지민의 시늬를 본다.

(종락)

S# 57. 교정 일각

재하 영화반을 그만둬?

정연 (담담하게)..... 네.

재하 (장난스럽게) 이 녀석들이 요즘 그만두겠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네.

정연 죄송해요.

재하 (미소로) 공부 때문이니?

정연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앞으론 영화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재하 결국, 공부 때문이네.

정연

재하 정연인 시나리오 작가가 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기억이 틀렸나?

정연 아뇨.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구요. (하는데)

재하 너 혹시 거인과 무지개에 관한 얘기를 아니?

정연 (보면)

재하 (다짜고짜) 옛날에 말야, **무지개**를 찾아 떠난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막고 서 있던 **거인**을 만났지. 남자는 거인보고 비키라고 했고 거인은 비켜주지 않았어. 그게 시비가 돼서 남자는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했어.

S# 58. 지민의 방(밤)

[A]

공부를 하고 있는 지민, 초조한 듯 손톱을 잘근잘근 씹는다. 공부가 잘되지 않는 듯 머리를 흔들며 보는 지민.

재하 (E.)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남자는 무지개를 잊어버리고 거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돼 버렸어. 오랜 세월 싸운 끝에 결국 남자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때 이미 남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무지개를 찾아 떠날 수가 없었어.

S# 59. 지민의 아파트 앞(밤)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정연 위로.

재하 (E.) 정연아, 니가 원하는 건 무지개니? 거인과의 싸움이니?

정연, 곰곰한 미소 지어 보이는데 아파트 안에서 나와 두리번 거리는 지민. 정연을 발견하고 다가온다.

지민 (의아해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정연 (미소로) 갑자기..... 니가 보고 싶어서.

지민 (뜻밖인 듯 본다.)

S# 60. 아파트 근처 공원(밤)

나란히 앉아 있는 정연과 지민.

정연 난, 언니처럼 되진 않겠다고 생각했었어.

지민 언니?

정연 응. 우리 언니 재수해서 지방 대학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엄만, 그게 참을 수 없었나 봐. 결국 언니 뜻과는 상관없이 자퇴하구 지금 삼수를 해..... 참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웃질 않아. 마치 죽은 사람 같아. 그런 언니 볼 때마다 언니처럼은 안 되겠다구,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보란 듯이 엄마한테 보여 주겠다구 다짐했었어.

지민 그랬구나.....

정연 거인과 싸우는 그 남자처럼 말야.

지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본다.).....

정연 (희미한 미소로 보며) 지민이 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지민 어? 아, 아냐.

정연 나두 싸움에 많이 지쳤었나 봐..... 미안해.

지민 미안하긴 뭐가?

정연 (일어서며) 그만 가 봐야겠다. 들어가. (돌아서려는데)

지민 정연아.

정연 (보면)

지민 고마워.

정연 뭐가?

지민 (멋쩍은 미소로) 하마터면 나도 무지개를 잃어버릴 뻔했어.

정연 (미소로 본다.)

- 김지우, '들꽃에게 희망을' '학교 II' -

* E.: Effect. 효과음.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

* O.L.: 오버랩(Over 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부드럽게 장면을 전환시키는 기법.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도'는 '지민'의 평소 행동을 나무라고 있다.
- ② '재하'는 '정연'의 입장을 생각하여 조언하고 있다.
- ③ 정연의 '언니'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④ '정연'은 어머니의 반대로 영화반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 ⑤ '지민'과 '정연'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44.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는 탄광 노동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11살 소년이다. 어느 날 **발레 수업**에 참여하게 된 빌리는 발레에 매료되어 **발레리노**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발레 수업은 중단된다. 발레를 포기할 수 없었던 빌리는 혼자만의 공연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우연히 빌리의 춤을 본다.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들을 지원해 준다. 이후 빌리는 여러 어려움을 딛고 로열발레단에 들어가게 되고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을 맡게 된다.

- ① '무지개'와 '발레리노'는 '남자'와 '빌리'에게 있어 소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다.
- ② '남자'와 '빌리' 모두 처음에 정한 자신의 목표를 상황에 맞게 바꾼다.
- ③ '길'은 '발레 수업'과 달리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상징한다.
- ④ '거인'과 '아버지'는 끝까지 꿈의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⑤ '거인과의 싸움'에서 '남자'는 소극적으로, '아버지의 반대'에 '빌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5.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33: '지민'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휴지통에 버려진 시뎀을 클로즈업해서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S# 57: '정연'의 단호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표정과 냉정한 말투로 연기하면 좋겠어.
- ③ S# 58: 인물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두운 조명과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④ S# 59: '정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도록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⑤ S# 60: 밤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공원을 꾸미는 것이 좋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